

2025

공동체은행

빈고

정기 총회

2025. 2. 8. (토)
오후 2시 ~ 5시

연구자의 집

문의 : 빈고폰
010-3058-1968

사진 제공 : 양군



총회 식순

- 1부 : 사전행사 (14:00~14:50)
- 2부 : 본회의
 - : 2024년 활동평가 (15:00~15:40)
 - : 2025년 활동계획 (15:40~16:50)
- 3부 : 뒷풀이 (17:00~22:00)

1부 : 사전행사

- 조합원 인사 / 공동체 소개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빈고활동상(BINGO AWARD) 시상식
- 공연
 - 양마루 밴드 (양군, 마시멜로, 비루)
 - 몽애의 하와이안 훌라 공연

조합원 인사 / 공동체 소개

총회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 39명

당신에게 2024년은?

- 바빴고 많은 변화가 있던 한해
- 내 몸건강에 집중 - 새로운 도전
- 24년 한해는 어떻게 생활하면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구조를 짜면서 실험하고 수정하는 한 해였던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도 시도해보고 하던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잡아보고요.
- 저와 웬자족은 크고작은 건강문제와 함께 쉬어가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 쉬기도 많이 쉬고 이런저런 교육 봉사 시험도 치루고 겨울 들어가면서 지방에서 일하다가 일 그만두고 또 쉬다가 외국에 잠시 지내러 나갑니다.
-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총회 때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아쉽네요. 다음에 좋은 기회 얻어 뵈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 17년만에 반지하를 탈출했어요. 사무실에서는 혼자가 됐지만 빈고 조합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줬네요. 모두 2024년 고생 많으셨어요~
- 세상에 재적응하는 시간
- 2024년이 끝나자 벌써 대학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와버렸네요. 군대(병역거부) 문제나 학업, 취업,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미뤄왔던 고민을 하는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 대학 자체에 대한 불화는 조금 수그러들어 조금은 더 활동보다 공부에 집중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지 보다 단단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빈고와 맺은 관계가 큰 힘이 됩니다. 🙏
-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건강도 전환기, 활동도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2025년부터 뭔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듯...ㅎ
- 제 안에 있는 모든 사교성을 박박 긁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 적당히 힘들었고, 적당히 아팠고, 조금 많이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습니다.
-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늘 새로운 날이었던거 같네요. 연말은 송두리째 어디로 가버린거 같지만요.
- 빈고와 재회한 해였습니다. 반가워요 :) 후후
- 힘의 한 해를 보내요

당신에게 2024년은?

- 요즘 너무 게을러져서..ㅠㅠ
- 24년은 미뤄둔 일을 계속 신경쓰고 살아남는 데만 급급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뭘 해보고 싶다는 게 별로 없던 거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매달 마이너스여서 빈고에 언제 다시 출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2025년이 되었네요ㅠㅠ
- 탁구라는 운동을 배워서 실력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틈틈히 기타도 치고 밴드도 하고 있고요. 직장업무가 교대근무라서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서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해왔던 사회운동 쪽에는 통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빈고를 통해 참여기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
- 움피칼하이테크지회의 투쟁과 오키나와 연대 활동 등으로 출장이 잦았고, 출장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사업, 다큐 '나란한 섬'의 중편 작업 완성 등으로 짧은 기간에 무리해서 일할 때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 2024년은 정말로 대단하고 빠치고? 많은일이있는 한해였어요
- 일만 하며 달려온 한해였어요~보람도 있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 아침, 점심, 저녁 운동과 함께 한 해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 24년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한해 였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올해도 그럴 예정인것 같네요ㅠㅠ
- 빈고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해에 대해 회고할 시간도 없이 지금까지(2월 1일) 왔네요! 정신 없지만 총만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ㅠㅠㅋㅋ 저는 친구들과 함께 DUP(Dances of Universal Peace, 세계 보편적인 평화의 춤) 연습모임을 만들어서 1월에서 9월까지 서울에서 한 달에 두 번 씩 진행하였었어요. 12월엔 DUP 국제캠프에도 참여했었는데, 캠프가 열린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생태마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 나눌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 다사다난했지만 잘 버텨낸 한 해였습니다.
- 시파푸니 카페를 열고,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빈고 덕분에 커뮤니티 비건북카페를 다시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오픈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해였어요. 공동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네요.. 그럼에도 올 한해도 구성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써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2024년은?

- 2024년은 버티는 한해로 기억됩니다. 올해는 좀 더 즐겁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 희야랑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린집에서부터 같이 동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보자 싶어서 '희한한 커플'이라는 이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과 축하해주실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새로운 홀라동지들을 만난 한해. 여행도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 몸과 마음 돌보기에 집중하면서 이제야 진짜 자립하는 기분이 드는 해였습니다. 혼자 보낸 시간이 많았지만 기분 좋아요.
- 작년은 두 번째 기록작업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소설 작법을 배우고 기후교회라는 새로운 개신교 공동체에 나갔던 해였습니다.

2024년은 빈고에 가입한 첫해였습니다. 요즘은 삼척과 서울을 오가며 지내고 있어요.

공연과 공연기획을 열심히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알바도 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보낸 한 해였습니다.

교육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서촌 공유작업실 약수터 운영하며,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살짝 도전의 한 해. 하고 있는 활동들이 난관에 처하거나 작지만 새로이 주어진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카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열심히 놀려고 했습니다.

외롭고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 공동체 소식

- 웬자족 결성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느슨한 연구 공동체(?) 혹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무척 재밌었어요
- 제가 속한 청년기후긴급행동에서는 한해동안 방향성과 내부 돌봄 등을 계속 다듬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빈고에 공동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길 바랐는데,, 아직 잘 추진이 안되고 있네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빈고랑 함께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보고 싶습니다!
- 새로운 식구들이 늘었어요.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 두물머리 활동가(이파람)께서 잘 공유해 주셨으리라..생각합니다
- 공동체it,들,평화바닥 후원회원(빈고와 연관된 단체만 꼽자면.. 후원만 하고 있습니다~
- 공룡의 전 멤버이자 빈고 조합원인 종민이 공룡 소속으로 복귀했습니다.
- 건강계 챌린지 덕분에 운동하는 계원들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진 것 같습니다. 운동 부심을 나누고, 운동인의 삶을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저는 넥스트젠 소속으로도 빈고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늦어서 죄송해요. 지난해 1월에는 이파람 조합원 덕분에 지구분담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덕분에 후원행사를 열고 2024년 활동비로 사용하였습니다.정말 고맙습니다. 현재 넥스트젠은 2024년 9월 잇는잔치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처리절차를 진행중이며, 위계폭력의 당사자로서도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행 과정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이야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졸라맨은 구성원이 1명 확대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출자만 하구 있습니다. 목적은 아직 없습니다.
- 대구 그린집은 공식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전의 우리집공동체는 야금야금 작당모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작당모의에서 끝나곤 하는데, 언젠간 작당모의가 실천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 이층집에서 함께 살고있던 문경이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살면서 환대와 자치를 경험했던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성을 많이나 텍스트로는 전했지만 허투루 건 생각있고, 고민이

2024년 공동체소식

- 이층집에서 함께 살고있던 문경이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살면서 환대와 자치를 경험했던 과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은 말이나 텍스트로는 전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졌던 지점입니다.
-
-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와 (사)세상과 함께라는 시민단체가 공동기획한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에 제 기사를 두 편 연재했습니다. '길동무'는 제가 문학 글쓰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기후와 환경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사는 용산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같은 취지의 기록작업이 또 이어집니다. 저 역시 올해도 두 편 정도의 기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작업의 결과물들이 나중에는 책으로 출간될 것 같습니다.
- 제가 활동하는 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은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운동을 위해 제가 활동하는 단체 청년기후긴급행동은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운동을 위해 2024년 11월 삼척에 거점공간을 구해 입주했어요. 저는 지난 달 삼척시민으로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2024년 11월 삼척에 거점공간을 구해 입주했어요. 저는 지난 달 삼척시민으로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 평화바닥은 지난 한 해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등 여러 평화 연대 활동을 하고, 평화와 환대를 위한 책모임과 영화모임을 하고, 매달 이달의 평화책을 고르고 연말에는 올해의 평화책을 고르는 활동 등을 했어요.

2024년 좋았던 활동

	뉴스레터	건강보험계	총회	커머너들의 북파티	두물머리 봄소풍	빈땅캠프 아포칼립스	빈고-도토리 회 협약식	대안금융포럼	빈고 책쓰기 모임	미디어 워크샵 캡컷 투데이 클래스	변산 조합원 여행	춘천 커먼즈 네트워크포럼	활동가 대회
합계	166	149	146	140	148	146	139	143	141	136	149	141	151
평균	3.56	3.21	3.12	2.98	3.19	3.14	2.98	3.07	3.02	2.91	3.16	3.02	3.21
표준편차	0.63	0.74	0.76	0.77	0.73	0.77	0.74	0.70	0.67	0.75	0.72	0.67	0.74

2024년 특별 잉여금 분배

	출자지지금	빈땅조합	주거운동단체	지구분담금	빈고적립금
합계	82	81	79	92	96
평균	1.85	1.85	1.78	2.08	2.23
표준 편차	0.64	0.63	0.68	0.72	0.60

2024년 특별 잉여금 분배

- 많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즐았고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못해서 아쉽다.
- 바쁜 와중에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것이 대견합니다!
- 총회 이후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단 사실에...;; 25년의 활동에는 잘 참여하겠단 마음을 다져봅니다.
- 총회에서 좋은 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 출자지급금과 지구분담금을 분배하고 남은 금액은 큰 사업을 위해 적립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 특별히 떠오르는 안은 아직 없네요.
- 없습니다
-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 지금 안 내에서 조금씩 배분하면 완전 좋을 것 같아오
- 선택지를 많이 주셔서 그 안에서 결정해도 좋을 거 같아오
- 특별히 없음
- 제안해주신 안들이 모두 좋습니다 :)
- 빈고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다면 그 사업을 위한 종잣돈 명목의 특별 항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관 개정이나 다른 추가 절차 이후에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 참여를 많이 못해 내용을 잘 몰라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
- "특별잉여가 생긴 것은 빈땅,빈고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을려나 싶기도 해서요. 빈고/빈땅 교육이나 설명회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금 잡아도 좋을것 같고요.
- 빈땅 이사회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던것 같은데, 뒷풀이 같은 자리라도 함 여시고 맛난거 드시라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빈땅분들 같이 회포를 푸는 자리여도 좋고요. 그 주제로."
-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음슴니다
- 다 좋아요~
- 분배만 잘하면 좋지요
-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 없습니다

2024년 특별 잉여금 분배

- 아름다운재단이 공모사업을 하듯, 빈고가 빈고의 활동방향에 맞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기획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대안금융 활동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공부모임비용 지원 등
- 연대활동, 강좌, 전시 등 사업/프로그램 지원? 지구분담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하되 빈고 혹은 빈고 공동체나 개인이 직접 주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에 한해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 총회준비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한 표!
- 없습니다
- 없음
- 잘 생각이 안나네요.
-
- 잉여금 분배를 위해 고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디어들 다 좋습니다!
- 일부를 빈고 상임 활동가 임금으로 사용 하고 1인의 상임 활동가를 모집하여 사무국을 만듭시다.
- 음....
- 없어요
- 늘상 그렇듯 빈고 활동가를 위해 좀 더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원의 활동 만큼이나 대사회적인 활동은 빈고 활동가들의 노고가 분명 크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싶네요.
- 없음
- 다른 아이디어는 따로 없습니다.

2024 활동평가 1/3

- 2024년은 빈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할수 있을 날을 기대합니다.
- 올해 많이 참여를 못했군요. 변산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동거리와 시간이 멀긴 했어도 좋았어요.
- 종말캠프, 변산소풍 등 놀러가는 일정에 참여 했는데 빈고 특유의 열려있고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 좋았습니다. 집회를 더 자주 함께 참여했으면.
- 2024년은 빈고조합원으로 가입한 첫 번째 해였다. 빈땅캠프를 시작으로 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다. 내가 가진 화폐 자본이 자본수익에 기여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대안적인 방식의 금융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로 소식을 자주 전해 들을 수 있던 것, 계속 나의 소식을 궁금해해주신 것도 빈고와의 연결감을 잃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 그 노동에 감사드린다.
- 봄소풍, 조합원여행 등 조합원모임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이제 조합원 활동 시작이어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고 참여하겠습니다.
- 활동가 대회 좋았습니다.
-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힘을 보태며 잘 버틴 것 같아요
- ㅎㅎ 빈고 기획들 다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 행사에 꽤 참여한 나 자신도 칭찬! (??)
- "빈고의 활동들에 참여를 활발히 하고 관심이 있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 같아요. (관심은 있지만 활동은 못한 저는 반쪽 조합원 ㅋ)
- 조합원들끼리 활발히 모이려 한 것은 (멀리서만 봐야 했지만 ㅈㅈ) 좋아보였습니다. 다만 수줍은 조합원들을 오프에서 만나는 것은 어려웠을 거 같아요.
- 뉴스레터 시작에 건네는 (아마도 대부분 반바지님이 작성하셨을 듯한) 말들이 다정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 빈고 책쓰기 모임은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 참여를 많이 못했지만 빈고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2024 활동평가 2/3

- 만나서 좋았고, 더 만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빈고 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도 각종 모임이나 번개등등으로 말이죠.
- 제가 뒤늦게 돌아와서 잘 모르겠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무슨 활동했는지 잘은 몰라요,, 그래도 활동이 계속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 운영위 참석만 했지.. 특별한 역할은 못했지만, 25년 운영위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좋았다
- 잘했습니다. 신규 조합원이나 공동체가 좀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더 잘해야되나 싶긴합니다.
- 참여를 못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네요. 활동 기록을 훑어보고 총회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없습니다
- 여러 활동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많이 참여는 못해봤네요. 부담없이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또 언제나 환영해주어서 좋았습니다.
- 오프라인 모임을 꾸준히 늘려갔고 새로운 운영위원들도 합류해서 빈고의 기반을 다져간 것 같습니다.
- 꾸준히 활동이 이어져서 뭔가 한 번 놓쳐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문자나 뉴스레터로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소식을 전해받은 조합원이 준비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고민하진 못했어요;
- "조합원 모임이나 관련 북콘서트, 책모임, 시위 현장모임, 번개모임등 다양한 모임들이
- 여기저기서 활발하게 진행된 점과 뉴스레터에서 소식을 알리려 힘썼던 점들이 좋았습니다."
- 없음
- 저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문학상, 소풍 등 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활동을 하지 못했어서 아쉬운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합원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4 활동평가 3/3

- 2024년에는 참석한게 별루없어서ㅠㅠ
- 평가할만큼 자주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 적극적인 빈고 조합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매월 다양한 참여가능한 활동들 소식을 보내주시고, 조합원 관리에 애써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드려요.
- 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큼니다.
-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던 한해라 빈고활동은 적극 참여하지 못했지만 아포칼립스 너무 재밌었고, 새롭게 만난 친구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이 수(?)있을지 고민됩니다.
-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아요~!
- 매우 좋았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 뉴스레터가 친근해서 읽기 편했고 적응하기 좋았습니다. 조금씩 적응해가며 많이 배웁니다 ㅎㅎ
- 개인 학업이나 생활에 치여 빈고활동에 기여하거나 연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올해도 어김없이 스스로의 다짐을 잘 지키디 못해 아쉽네요
- 가입 기간이 짧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 "2016년 여름, 기존에 거주하던 아현동 쓰리룸집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사라지면서 빈고의 도움으로 명륜동에 새로운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환경적, 사회적, 개인적 언덕들을 넘고넘어가는 길에 문득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돌아보면, 조합원으로도 공동체로도 빈고의 다양한 활동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을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가, 생애주기 및 여러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명륜동쓰리룸이라는 공간과 공동체를 그 과정에서 잘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역시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올해에는 잘 마무리 하고, 그래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보려해요!

2024년 기억나는 빈고

- 갈등탕비실 사랑해요
- 빈고폰에 안부 문자 보냈는데 답변이 돌아왔을때 반가웠어요
- 태안/목포 확대운영회의 건 조합원소풍
- 잔잔 따라 빈땅캠프를 다녀 왔어요. 깊이 있게 참여 하지 못해 잘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올해는 잔잔 따라 운영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잘 참여하겠습니다.
- 사실 제가 그렇게 활동한게 많이 없어서 소감을 남기기가 부끄럽네요~매월 소식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 좋겠다. 부럽다.
- 참여가 없었지만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요.
- 참여한 게 없어 적을 말이 없습니다;;;
- 첫해라 알아가는 중입니다.
- 12월 운영위원회 목포 워크숍, 9월 천리포해수욕장 소풍(?) 회의와 토론을 점점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본인의 사정으로 출자를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공유해주시는 소식들은 잘 받고 있다.
-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가 별 활동을 못해서...빈그림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ㅠㅠ
- 여름캠프 재밌었음다~
- 기차타고 처음으로 목포를! 찐행복♡
- 성실하지 못한 조합원이래서;;
- 열심히 놀러 다닌거 같네요.
- 올해 함께한 활동이 많지가 않네요 ㅠㅠ24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2024년 빈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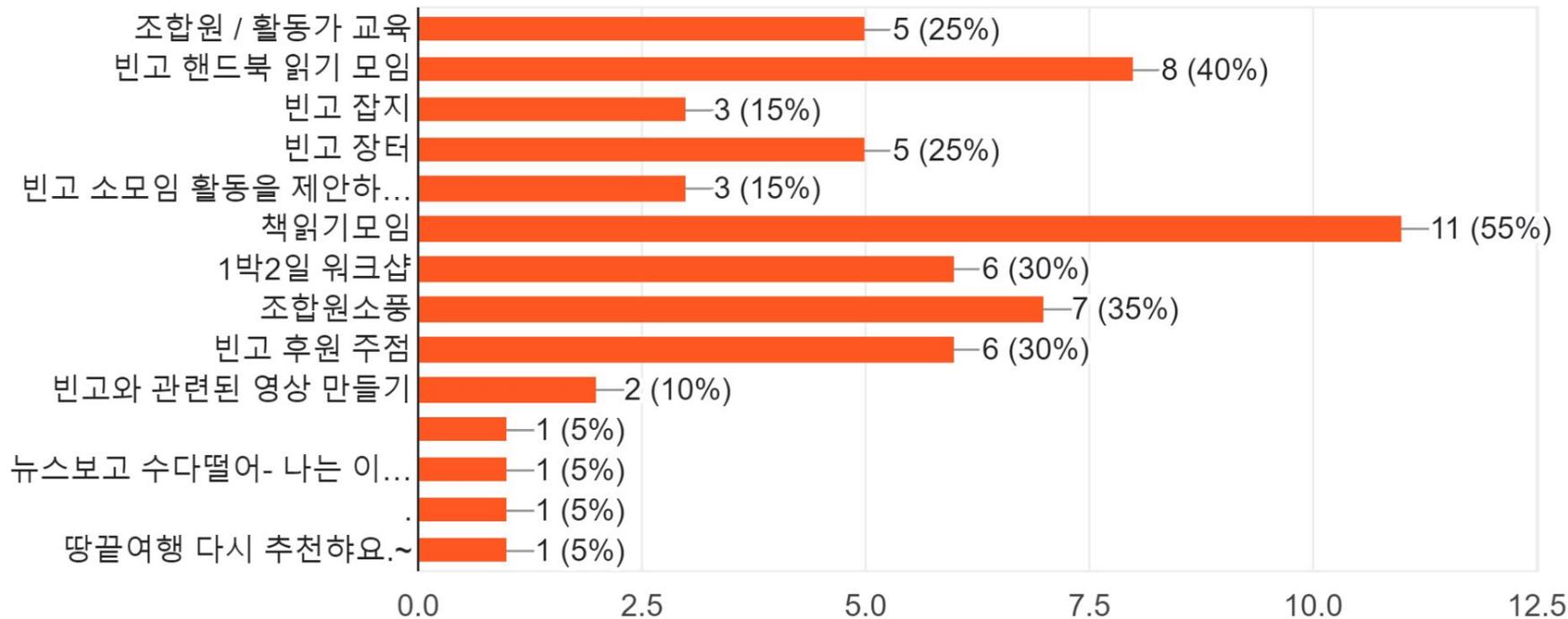
잘 한 것

- 꾸역꾸역이라도 회의 참여하고 뉴스레터 만든 것
- 캠프들 좋음, 모여서 놀면 좋음
- 근조기 만든 것
- 원들. 그저 응원.

아쉬웠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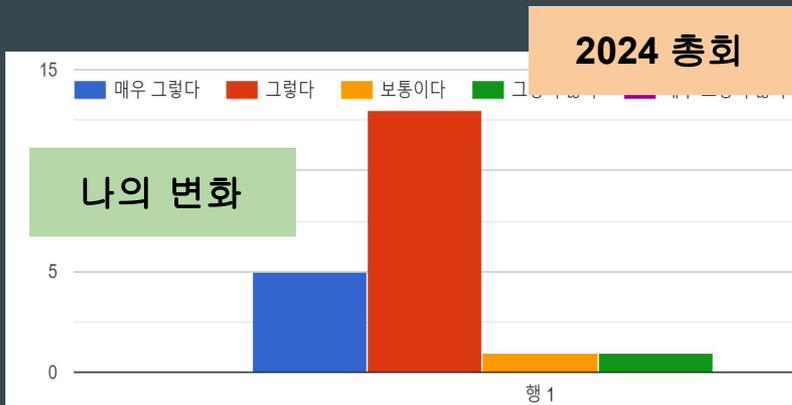
- 조합비 증액 여부와 같이 쟁점 있는 사안에 대해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논의할 수 있는 과정과 장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 잘했음
- 몰라용.

참여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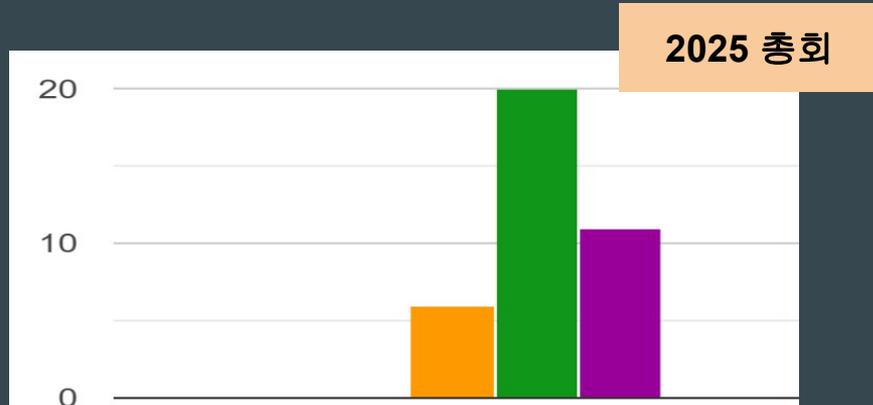


나와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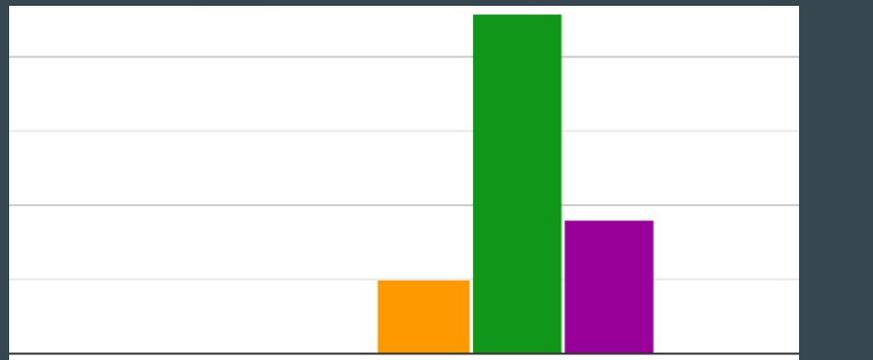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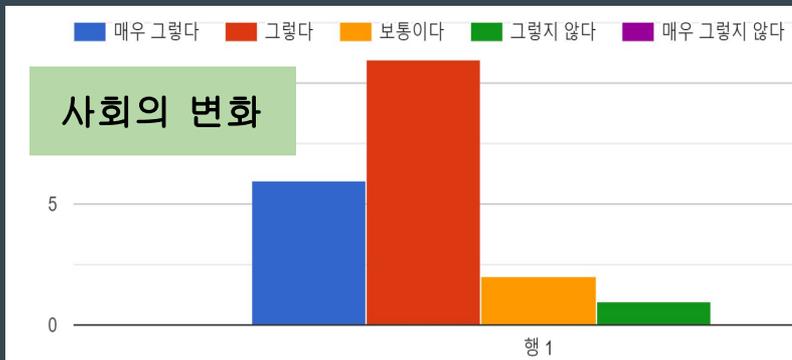
2024 총회



2025 총회



사회의 변화



빈고가 삶에 준 영향 1/3

- 연결되어있다는 감상을 준다
-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덕분에 자본, 돈 익숙한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고민도 하게 되고, 많이 배웁니다.
- 집과 삶의 지지기반이 되었습니다.
- 건강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소통과 만남이 삶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상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 새롭고 대안적인 공동체 은행의 실천
- 든든하다
- 공유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해줘요.
- 세상의 다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힘을 줍니다!
- 공유지에 대한 상상을 고민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고 있어요
- 든든한 뒷배가 생겼음
- 존재만으로.... 🥹🙏
- 비슷한 가치를 지향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삶의 활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빈고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정해서 바스러져가는 인류애가 종종 충전됩니다. 혼자 또는 가족을 넘어서 공유하며 사는 노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빈고 소식을 한번씩 접할 때면 나태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랄까...
- 환기 및 각성 효과.
-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층위에 대한 고민
- 주위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
- 사람들과 교류
- 그냥 잘 있어주는것만으로도 좋네요
- 위급할때도움
-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하나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빈고 안에서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안? 든든함이 있어요. 빈고와 같은 대안 금융, 대안 공동체가 더 많아진다면 자본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빈고가 삶에 준 영향 2/3

- 소속감?
- 언젠든 빈고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든든함을 줍니다.
- 반자본과 공유지라는 삶의 방식과 수단을 현실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고,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종종 생각하고 돌아보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년간 운영위 활동을 하고 보니 또 관성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마는 내가 드러나고 있어 조금 고민입니다."
- 공감
- 기존에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실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힘이 됩니다.
- 음....사람들의 편안함??
- 빈고를 통해 새로 알게된 사람들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되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해요
- 저는 여러 친구들에게 빈고를 소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빈고를 가입한 친구도 있어서(꼭 제 추천때문만은 아니지만) 뿌듯했던 한 해였어요. 저는 실제로 빈고 주거공동체로서 제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삶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빈 자리를 늘 남겨놓을 수 있음에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살고 싶은 삶,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상상하고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빈고가 있음에, 그 상상력과 실천력이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 미친 세상에서 함께 살아남을 동지들이 있기에 그것으로 큰 힘을 받습니다.
-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도전과 꿈을 꾀왔던 것들을 현실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 뉴스레터나 활동을 보면서 종종 잊게 되는 가치관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 주거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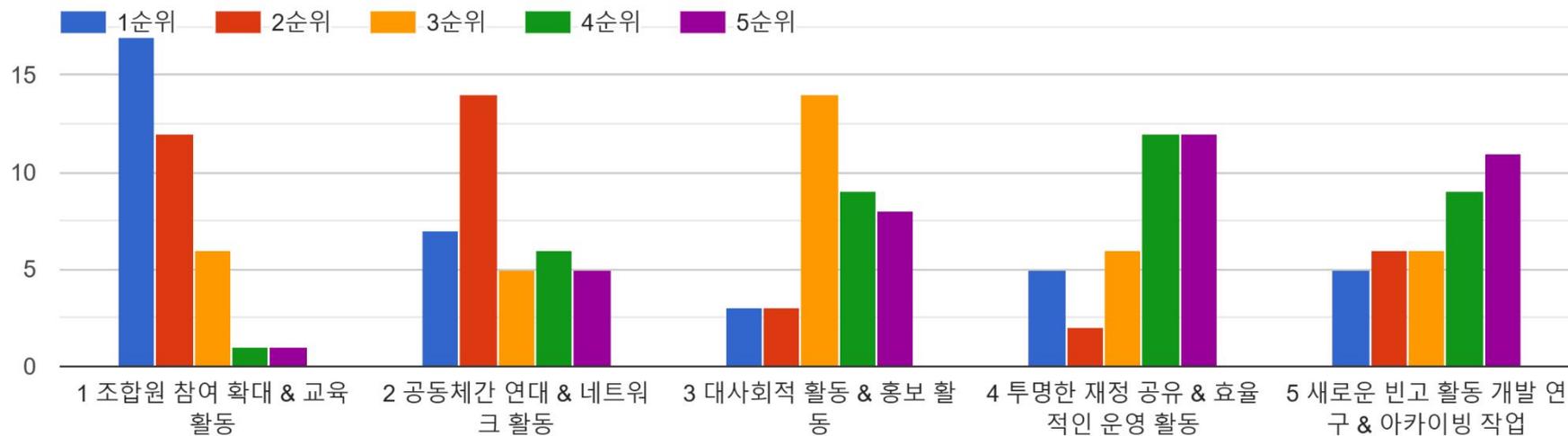
빈고가 삶에 준 영향 3/3

-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사회를 바꾸 행동하는 빈고의 일원이라 자랑스럽고 기뻐요
- 내게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틈을 많이 준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 아직은 적응단계라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ㅠ 올해는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ㅎㅎ

●

향후 빈고 활동 방향 순위

(필수) 향후 빈고의 활동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빈고가 힘썼으면 하는 활동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중요도를 평가해주세요. (5가지 항목)



향후 빈고 활동 방향 순위

	1. 조합원 참여 확대 & 교육	2 공동체간 연대 & 네트워크	3 대사회적 활동 & 홍보 활동	4 투명한 재정 공유 & 효율적 운영	5 새로운 빈고 활동 개발 연구 아카이빙
합계	96	114	154	163	145
평균	2.07	2.42	3.21	3.35	3.19
표준 편차	1.19	1.39	1.34	1.55	1.58

빈고 활동방향 아이디어 1/2

- 2네트워크 연대활동 응답지의 2순위3순위가 선택이 되지 않네요. 원래 하려던 응답은 4-2-3-5-1입니다.
- 창의력이 없어서 슬픈데요... 각자의 활동 자랑대회 이런거 어떨까요? 넘 멋지게 사시는 빈고 조합원들이 계신데 사실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별루 없는 것 같기도해요.
- 번개 활성화, 온오프 베틀시장 활성화
- 아름다운재단이 공모사업을 하듯, 빈고가 빈고의 활동방향에 맞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기획해보면 좋겠습니다. 대안금융 활동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공부모임비용 지원 등..
- 빈고 잡지나 문집 만들어서 배포(우선, 빈고공동체와 관련단체?)
- 요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이 시국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대안금융이 왜 필요한지 빈고가 지향하는 가치를 잘 엮어서 빈고를 알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해볼 만한 자리를 기획해보면 재밌을 거 같아요.
- 저는 빈땅 아포칼립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아포칼립스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도 좋고, 아니면 그런 주제(컨셉?)를 정하고 만나는 빈땅 캠프나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
- 제가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빈고 조합원들을 연대해보고, 직매장에서 함께 팔아보는 공동체간 연대도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위해 좋을것 같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소모임을 지원해서 소모임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소모임은 그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면 좋겠다. 활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수다 떠는 모임, 보드게임 모임, 노래방 같이 가기 모임, 술모임, 찜질방 같이 가기 모임, 책모임, 글쓰기 모임, 사회 연대활동 모임 등 관심과 주제에 맞게 다양하게)

빈고 활동방향 아이디어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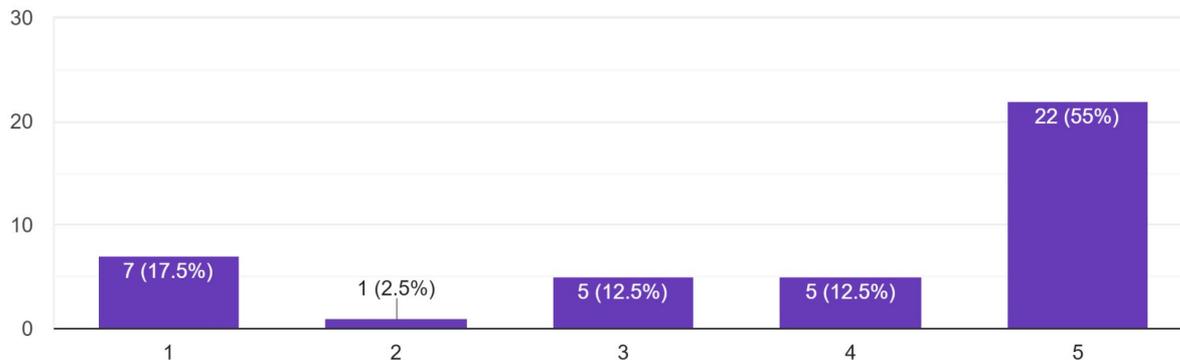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자료도 찾고 제안서도 썼을 거 같은데 (핑계)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좀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니까요 ㅎㅎ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물품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곳은 많지만, 지출/저축 계획이나 금전감각 등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나오게 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빈고가 보여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새로운 조합원도 생길 거 같고요!!"
- 4번은 이미 잘 하는거 같아서 순위가 밀렸는데요...흠..구체적 방법에 따라 순위는 바뀔것 같아요. 공동체 방문 꼬리에 꼬리 물기 같은걸 해볼까나요.

빈고가 적극적으로 공간 운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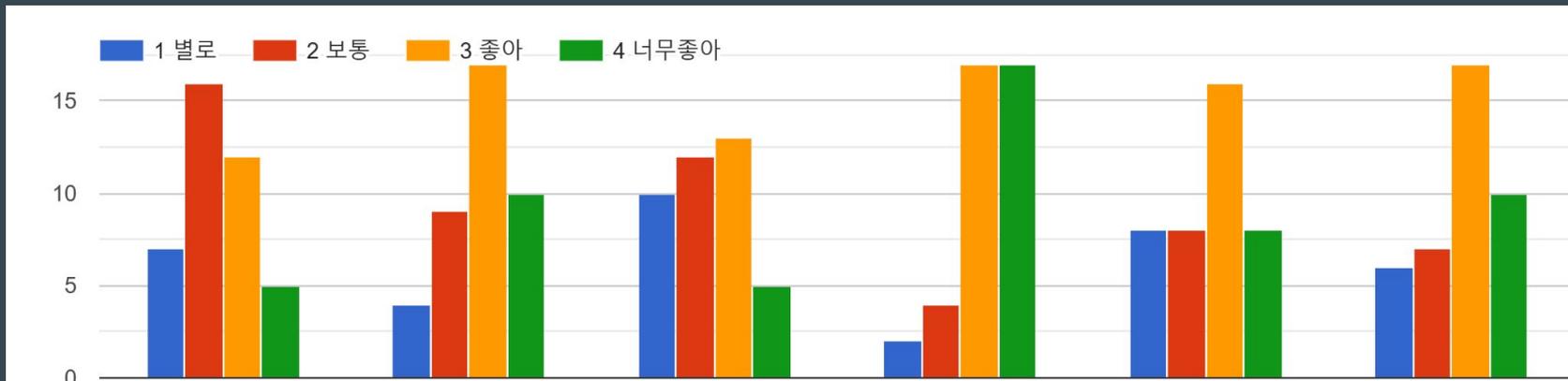
평균	3.85
표준편차	1.57
1점 갯수	7
2점 갯수	1
3점 갯수	5
4점 갯수	4
5점 갯수	22

빈고 예치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현재는 2억 8천빈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빈고가 적극적으로 공간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답 40개



공간 매입한다면 어떤 곳?



	서울 주택	서울 게스트하우스	서울 상가	지역 거점 공간	지역 주택	논밭
합계	108	131	106	151	122	126
평균	2.35	2.81	2.28	3.19	2.60	2.72
표준 편차	0.92	0.93	1.01	0.83	1.03	0.98

계획중인 이용활동

- 대학원 등록금(2학기)
- 지역 공유(?)주택 or 거점공간 운영해보고 싶어요 (🙄망할수도있겠지만)
- 현재 없습니다
- 플리마켓처럼 상시 빈고조합원이 팔수있는 공간
- 대학원 학비 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대신!)
-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 - 아름다운 가게 처럼 기부를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공간, 공방처럼 누구나 와서 만들거나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수업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아름다운 텃밭을 가꾸고 나누는 공간 등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 사무국을 만듭시다.

출자활동 계획 1/2

- 여력이 되는대로
- 매달 10만빈
- 매달 조금씩 여유가 생길때마다 출자?
-
-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 잔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수입의 2%
- 매달 오만원 목표! 자꾸 까먹기는 합니다....
- 매달 만원 이어가려고 합니다
- 매달 출자
- 용돈생활자인데요.. 용돈의 10% 출자를 계획해보겠습니다!
- 잘 모르겠어요 아직
-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출자는 어렵습니다. 현재 수입-지출=0 의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것 만으로도 훌륭한 상태라서 >_<
- 틈틈이 수입이 생기면 5~10% 정도를 출자해보려고 합니다.
- 매달 출자 할게요.
- 일단 2024 이월을 모두 반환하고 정기 출자로 전환하기를
소망합니다당 (수입이 워낙 작아서 어려울수도)
- 월,,1만빈
- 매달 여유가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출자.
- 남는 돈을 출자
- 아.. 출자해야지 하면서.. 매번 안하네요.. 올해는 되도록 매달
하겠습니다.
- 없음
- 가능하면 월 1만 빈씩이라도 출자해볼 계획입니다.
- 수입의 3%
- 매달 5만원씩 반환 & 출자
- 매달 10만빈 정기 출자 계속
- 작년부터 고정지출이 늘어 꾸준한 출자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이월부터 꾸준한 출자를 계획해봅니다.

출자활동 계획 2/2

- 계획은 딱히 없었는데...ㅋ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한달에 만원정도 출자해볼까 고민해볼게요.
-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고민이지만.. 수입의 10%라는 예시가 위안이 됩니다. 올해에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 줄라맨을 통해 월 5만원.
- 아직 생각이 없어유..
- 월 30만빈 출자하려고 해요
- 수입의 10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사실 한동안 출자를 못했고, 비정규적으로 출자를 했었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정규적인 출자를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 -
- 매달 6만빈
- 올해는 매달 출자하는 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 현재 출자금액보다 2배 이상 출자해보고 싶다.
- 올해는 소득이 확 줄어 미정입니다.

연대활동 계획

- 희년은행 연계
- 지역에서 시민 감각 깨우기 (숙의민주주의)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는데 가능한 만큼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중입니다
- 현재 없습니다
- 옵티칼하이테크, 오키나와-제주-군산-성주
평화활동, 새만금신공항반대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조성 기금 펀딩에
참여(아직 구체적인 모금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기다리고 있음)
- 빈고 지구분담금 페이지를 보며 도움 받겠습니다.
- 팔레스타인 연대, 미얀마 연대, 난민 이주민 연대,
탈성장 및 기후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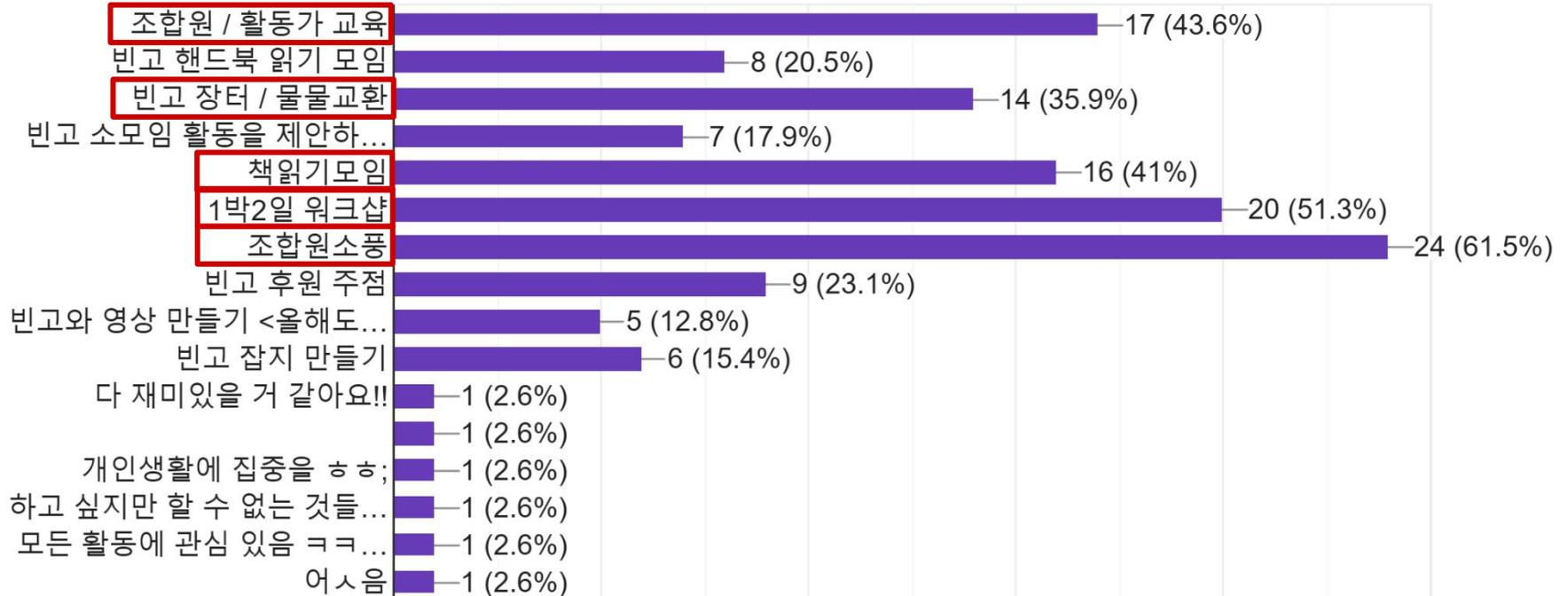
연대활동 계획

- 희년은행 연계
- 지역에서 시민 감각 깨우기 (숙의민주주의) 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는데 가능한 만큼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중입니다
- 현재 없습니다
- 옵티칼하이테크, 오키나와-제주-군산-성주 평화활동, 새만금신공항반대
-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쉼터 조성 기금 펀딩에 참여(아직 구체적인 모금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기다리고 있음)
- 빈고 지구분담금 페이지를 보며 도움 받겠습니다.

운영활동 계획

- 공동체 방문 or 인터뷰 활동 같이 하실분 있음 할수 있을거 같네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ㅎ
- 잡지 만들면 좋을듯합니다. 힘드니까 반년에 한번 정도
- 빈고 사람들과 농활을 가고 싶습니다
- 저는 소모임과 번개 모임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모임을 촉진하는 태스크포스나 위원회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면 활동하고 싶네요.

2025 참여하고 싶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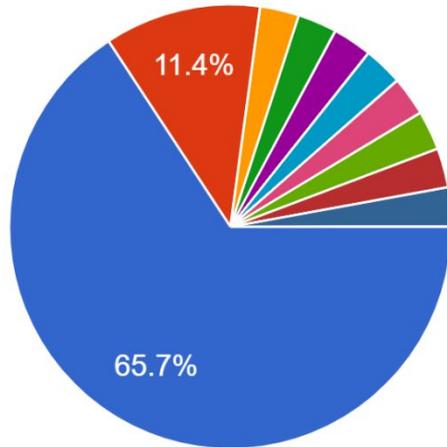
운영활동가 추천

- 양군 반바지 연두 정훈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 파람님이 대표활동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쉬신다는 풍문이 있더군요. ^^ / 희진, 하루, 삼권, 염님 추천합니다.
- 빈고 공동체에서 참여해주면 좋을듯.. 염창근?
- 염창근
- 연두, 가온, 제제

지역 소모임

2024년 활동가대회 설문조사에서 빈고 지역 소모임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빈고 조합원들의 소모임이 생긴다면 참여...사가 있으실까요? 어떤 소모임이었으면 좋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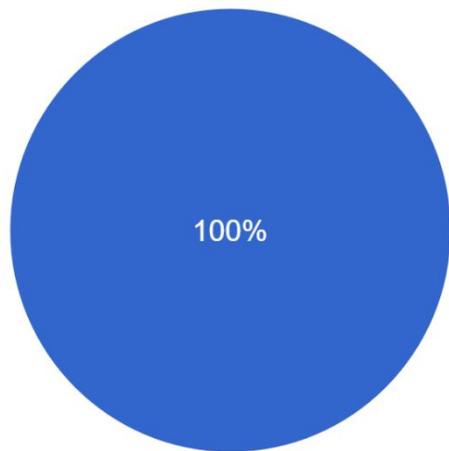
응답 35개



- 참여하고 싶다.
- 참여하고 싶지 않다
- 뭔가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 수다 떠는 모임 (식사나 다과와 함께),...
- 포괄 지역 규모에 따라서 고민될것 같...
-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듯
- 정기적인 참여를 확신할 순 없지만 반...
- 한 두 번 참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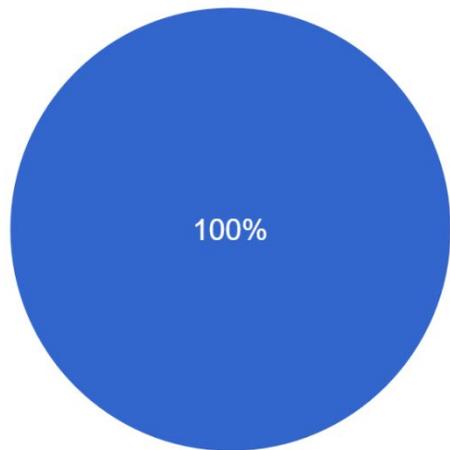
빈고에는 "거대보험사 배불리지 않는 보험!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보험! 질병이나 사고도 OK~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이 있습...합원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을 원하면 문의주세요]
응답 34개



- 빈고 건강계
- 빈고 건축계
- 빈고 건치계

건강계

빈고에는 "거대보험사 배불리지 않는 보험!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있는 보험! 질병이나 사고도 OK~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역할을 하는 계모임이 있습...합원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을 원하면 문의주세요]
응답 34개



- 빈고 건강계
- 빈고 건축계
- 빈고 건치계

하고 싶은 말 1/2

- 화이팅요
- 2024년 수고했어요 우리 모두! 2025년도 함께 잘 해보아요!
- 빈고 화이팅!!
- 건강계 퀴즈 재있어요~ 언젠가 꼭 다시 가입하겠습니다
- 그동안 수고한 대표/운영활동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총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요.
- 앞으로의 활동 협력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잘 만났습니다!!
- 2025년에도 즐겁게!!
- 🥰🥰🥰♥
- 빈고 고마워요~!
- 늘 그자리에 있어주세요.
-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빈고~~~ 🥰
- 다들 화이팅입니다
- 늘 고맙습니다!ㅎ
- 매년 말로만 참여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빈말하지 않고 빈고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아보겠습니다.

- 있어줘서 고마워요.

(딴 얘기) 빈고 예치금 활용을 위한 질문이 위에 있는데요, 빈고가 공간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운영회의록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제가 대강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빈땅조합이 공간을 늘리기 위해 빈고에서 추가 이용활동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빈고가 직접 공간을 매입해야 하는 이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빈고에 잉여금을 더 만들어서 조합원 출자 지지금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빈고 운영비를 더 늘리고 싶은 걸까요? 설문 특성상 설명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적과 이유가 명시되지 않으니 선뜻 동의가 안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후원주점도요;; 다음에 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 매년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같이 잘 나아갑시다.
- 빈고야 니가 고생이 많다 ㅋ 이 긴 설문을 응당한 나도 고생했음 ㅋ
- 굳
- 헬 2025년도 잘부탁합니다당

하고 싶은 말 2/2

-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올한해도 잘부탁합니다
- 내외로 어려운 시기네요. 힘내시구, 수고하세요.
- 화이팅
- 몇 년 동안 빈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25년에는 빈고 활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빈고 화이팅
- 감사합니다 ㅎㅎ
-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빈고, 고맙습니다!
- 👍
- 없음
- 천천히 마음가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여전히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 빈고 활동가 육성발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빈고가 있어 다양한 사람들, 삶을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운영자분들, 활동가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생태공동체에 놀러갔다가, 제 핸드폰과 텀블러 붙어있는 빈고 스티커를 보고 물어보는 다른나라 친구들이 있었고, 공유대안은행으로서 빈고를 설명할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활동이라면서 엄지척 해주는 모습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멋진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 누구나 혼자인 세상에 빈고가 있어 덜 외로웠어요.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올 한 해도 조합원들과 즐겁게 활동했으면 해요. 빈고가 지속가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 돈은 안쓰는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오다 보니 빈고 활동도 특별히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빈고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연대하는 경제공동체를 경험해가고 싶어요. 총회에서 반갑게 뵈겠습니다. ㅅㅅ

2024 빈고 어워드



출자활동상
이용활동상
연대활동상
운영활동상
공동체 활동상



출자활동상



가비	감은빛	강은빈	개굴	겨리	고영희들	고운	권다윤	금산재단	김삼권
김상국	김완	나르go	나마스떼	나영	나현	날맹	네오	노랑4	노래
놀이네	다영	다용	디디	디온	마시멜로	멍구	멍니	미나	미옥
바다	반달	반디	반바지	밤구	백광열	백련	베로	봄봄	부깡
비루	살구	상글	새길	셋별	설	소희	숲이아	시금치	시월
송	알록	어린	우중산책	유선	윤티	은경	은채	이수희	이아영
이짜	이파람	일농	임명희	잔잔	정교	지음	진규	짱돌	찬
철수	최소연	최송	최효정	카라	카오모	크트	파코	해씨	햄
활순	효선	희야	-	-	-	-	-	-	-

이용활동상



가비	개굴	그름	김성은	노래	다운	담묵	등대	디디	디온
마리아	몽애	미옥	반바지	밤구	배꼽냄새	베로	살구	상글	새길
설해	송	아침	연두	온	왕뚜껑	우중산책	웅기	윤기쁨	윤집사
은경	이수희	이파람	자기	잔잔	정훈	지각생	지음	찬	천피터
최세림	크트	파코	하루	혜진	홍성훈	-	-	-	-

운영활동상



가비	등대	디디	마시멜로	멍구	몽애	바다	반바지	배꼽냄새	부깽
비루	산초	살구	설해	쌍쌍	아침	알록	양군	여울	염
오재미	온	왕뚜껑	우마	웅기	유선	이파람	잔잔	재아	정훈
제제	지각생	지니	지음	크트	하루	햄	현영	-	-

공동체 활동상



현영	햄	하지메	하루	편범삼	천피터	지음	정훈	정교	재아
잔잔	이파람	이수희	이름	은경	윤집사	유선	옥수수	엄	연두
수수	상글	살구	비루	밤구	반바지	미옥	몽애	디디	등대
놀이네	날맹	나르go	광대	개굴	-	-	-	-	-

2024 빈고 어워드

활동상	어워드 수	전년대비
출자활동상	83 개	+21 명
이용활동상	46 개	+4 명
운영활동상	38 개	+7 명
연대활동상	12 개	+6 명
공동체활동상	35 개	+8 명
총계	214 개	+46 명

구분	수상자 수	전년대비
5 관왕	3 명	+2 명
4 관왕	3 명	+0 명
3 관왕	21 명	+9 명
2 관왕	24 명	+2 명
1 관왕	76 명	+5 명
총계	127 명	+18 명

축하 공연 1

양마루 밴드

(양군+마시멜로+비루)

축하 공연 2

몽애의

하와이안 훌라 공연



2부 : 본회의

- 개회선언
- 2024 활동평가
- 2025 활동계획
- 기타 안건

총회 성원 확인

전체 조합원	488 명	참석률
전체 의결권	207 명	61.4%
참석	26 명	
위임	101 명	

개회 선언

- 의사일정 확정
- 서기 선임
- 안건 채택
- 전년도 회의록 승인

빈고 정관 전문 낭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리고 가꾸며 살아가는 공유지다.

우리는 공유지를 망치는 독점과 수탈과 차별에 반대한다.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질서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의 은행에서 벗어나 탈자본의 은행을 함께 만들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화폐가 자본이 아닌 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에 출자한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대출을 거부하고, 빈고의 공유지를 이용한다.

우리는 자본수익을 사양해서, 원래의 주인인 빈고의 외부와 연대하고 환대한다.

우리는 황폐한 공유지나 또 하나의 자본이 되지 않도록, 빈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는 자본의 원리를 넘어 공유를, 국가의 원리를 넘어 자치를, 가족의 한계를 넘어 환대를 실현하는
공유지은행 빈고를 함께 만들어간다.

우리는 공유, 자치, 환대하는 공동체들의 공동체로서, 스스로 공유지가 되어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2024 활동평가

- 제1호 안건 : 2024년도 활동보고 및 평가
- 제2호 안건 : 2024년도 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
- 제3호 안건 : 2024년도 감사보고

결산 : 공유상태표

공유지(좌변)				공유자(우변)			
구분	전기(2023)	당기(2024)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3)	당기(2024)	당기/전기
자산 총액	503,906,255	601,974,513	119%	부채+자본 총액	503,906,255	601,974,513	119%
현금 및 예치금	204,746,255	285,458,871	139%	출자금	309,242,537	358,195,863	116%
공동체출자	17,000,000	18,000,000	106%	적립금	105,276,009	115,343,875	110%
공동체공간	212,220,000	200,740,000	95%	공통장	55,755,493	52,839,541	95%
공동체활동	29,880,000	51,593,333	173%	공통계	9,847,167	51,874,923	527%
공동체회원	10,890,000	17,060,000	157%	차입금	10,000,000	0	0%
조합원이용	29,170,000	29,122,309	100%	당기잉여금	13,785,049	23,720,311	172%

결산 : 운영성과표

지출				수입			
구분	전기(2023)	당기(2024)	당기/전기	구분	전기(2023)	당기(2024)	당기/전기
지출 총액	12,005,220	12,755,690	106%	수입 총액	25,322,269	36,476,001	141%
운영비	1,228,770	1,139,360	93%	분담금(공동체)	16,000,315	25,601,768	160%
활동비	9,245,000	9,148,000	99%	분담금(조합원)	1,739,060	750,719	43%
회의비	865,450	1,112,350	129%	활동수입	2,050,000	2,160,000	105%
사업비	366,000	1,280,980	350%	조합비	1,140,320	730,000	64%
이자비용	300,000	75,000	25%	선물	697,888	297,703	43%
기타지출	-	-	-	이자수입	3,694,686	6,935,811	188%
당기잉여금	13,317,049	23,720,311	172%	기타수입	468,000	-	-

잉여금처분안

당기(2024) 잉여금 분배안

잉여금총액	23,720,311 빈	100.0 %	전기 대비 172%	기본안 대비
출자지지금	10,285,736 빈	49.1%	출자금의 3.0% 적립(신협 -0.4%P)	-1,371,422 빈
지구분담금	3,000,000 빈	12.6%	10% 이상	+600,000 빈
이용지지금	900,000 빈	3.8%	특별잉여금 제외 10% 이상	-1,500,000 빈
빈고적립금	7,459,936 빈	31.4%	10% 이상 적립	+796,783 빈
화도가기금	300,000 빈	1.3%	저기 도인	-300,000 빈

잉여금처분안(기본안)

당기(2024) 잉여금 분배안

잉여금총액	23,720,311 빈	100.0%	전기 대비 172%
출자지지금	11,657,158 빈	49.1%	출자금의 3.4% 적립(전기 +0.5%P)
지구분담금	2,400,000 빈	10.1%	10% 이상
이용지지금	2,400,000 빈	10.1%	10% 이상
빈고적립금	6,663,153 빈	28.1%	20% 이상
활동가기금	600,000 빈	2.5%	증가

잉여금처분안(전기)

전기(2023) 잉여금 분배안

잉여금총액	13,785,049 빈	100.0%	전기 대비 155%
출자지지금	9,502,461 빈	68.9%	출자금의 2.9% 적립(전기 +0.9%P)
지구분담금	1,400,000 빈	10.2%	10% 이상
이용지지금	1,400,000 빈	10.2%	10% 이상
빈고적립금	1,382,588 빈	10.0%	20% 이상이지만 10%로 적립
활동가기금	100,000 빈	0.7%	

감사 보고서

감사 : 하루, 바다

2025 활동계획

- 제4호 안건 : 2025년도 조직 및 임원구성
- 제5호 안건 : 2025년도 활동계획
- 제6호 안건 : 2025년도 예산 및 공유지운영
- 기타안건

16기 활동가 후보

- 대표활동가 : (집단지도체제? 순번제?)
- 운영활동가 후보 :
 - 계속 : 반바지, 설해, 잔잔, 쌤쌤, 양군, 지각생
 - 신규 : 마시멜로, 연두, 반달 (+현장 추천)
- 책임활동가
 - 재정담당 : 지음 (+후임)
 - 건강보험계 : 유선
 - 홈페이지 : 부깽
- 갈등탕비실 : 온
- 감사 : 크트, 김재광 (+현장 추천)

16기 활동계획

- 정기 활동
- 공유지 공간 매입 추진
- 빈고 책 출판
- 빈고 어플리케이션 도입
- 대안금융단체 협업 추진
- 연대사업
- 활동비 확보와 활동가 총원
- 지역별 소모임 추진
- 빈고 책수다모임

- 활동 아이디어 / 제아나

- 농활
- 노선 아카이빙 : 이파람, 온 꼭 참여 예정
- 조합원 성평등교육. 들 민주적인 단체만들기 교육. 반폭력 워크샵 등
- 빈고 잡지, 문집 작성 배포
- 다른 조합원들의 활동자랑대회
- 자립청년 경제교육
- 공모사업, 대안금융 청년들 공부모임 지원
- 공동체방문 인터뷰
- 빈고사진전
- 빈고DIY작품전

16기 예산/공유지 계획



소식공유

건강보험계

거대 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에 가입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보험 하나 없이 살자니 매일매일이 불안하시다고요? 빈고에는 건강 보험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계에 매달 계비를 내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되면 깃돈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비는 매달 꼬박꼬박 냈지만 너무 건강해서 깃돈을 타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의 계비덕에 많은 계원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도 건강하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상부상조의 정신이 스며든 계모임과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이 두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진 건강보험계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빈고로 문의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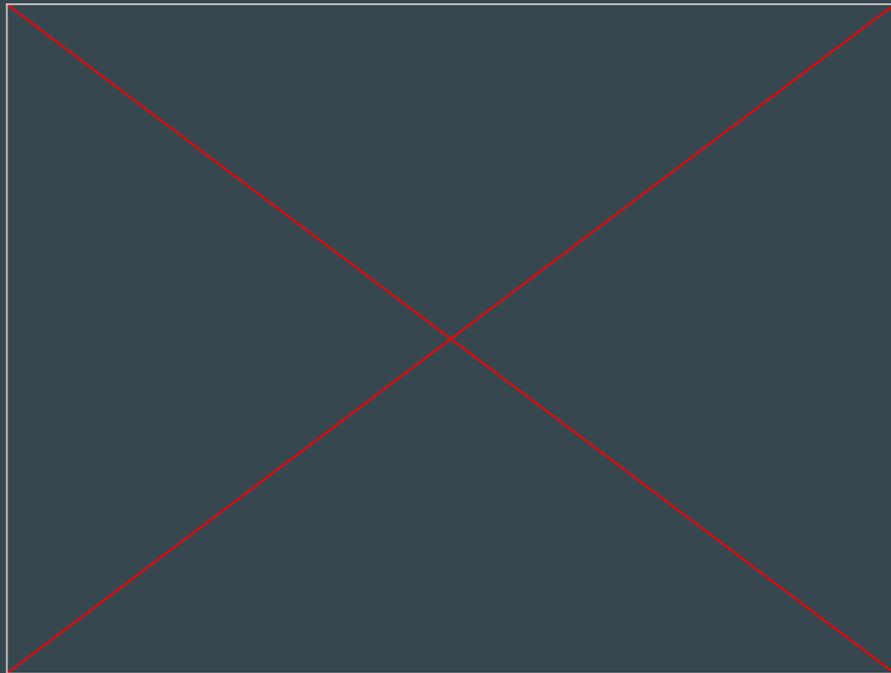
빈땅조합

올해 빈땅캠프는 진안에서 2박3일

6/6(금)~6/8(일)

공공공유

공간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유공간 정보 조회 및 열람공유공간 예약 현황 보기 / 예약하기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마을게시판 > 그룹별로 모아보기마을캘린더공유저장소 링크주간 게시물 모음 문자 뉴스레터 발행
회원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회원간 시간선물회원간 앞거래 > 도토리회/앞과 협의 필요.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그룹 정보 (단체, 동아리, 소모임 등)그룹별 게시물 모음





책을 담아 담이 되는 책 이야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가 즐거운 이상한 생선가게
Make life yummy



이음수산 대표생선12



이상한 생선가게 이음수산은 바다, 문화, 이야기를 공부하고, 연구하여, 우리 삶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당신의 삶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 이상한 생선가게의 목표입니다.

이야기가 담긴 작은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make life yummy, we are all connected

#신선한 #회 와 #제철해산물, #밀키트 판매

#바다, #문화, #이야기 를 바탕으로 #굿즈 제작, 판매

해남 미세마을 우리 쌀 맥주



기념사진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뒷풀이

~10시 : 연구자의집

10시~ : 비루 집

(비용은 사업비 제외하고 빈빡합니다.
)